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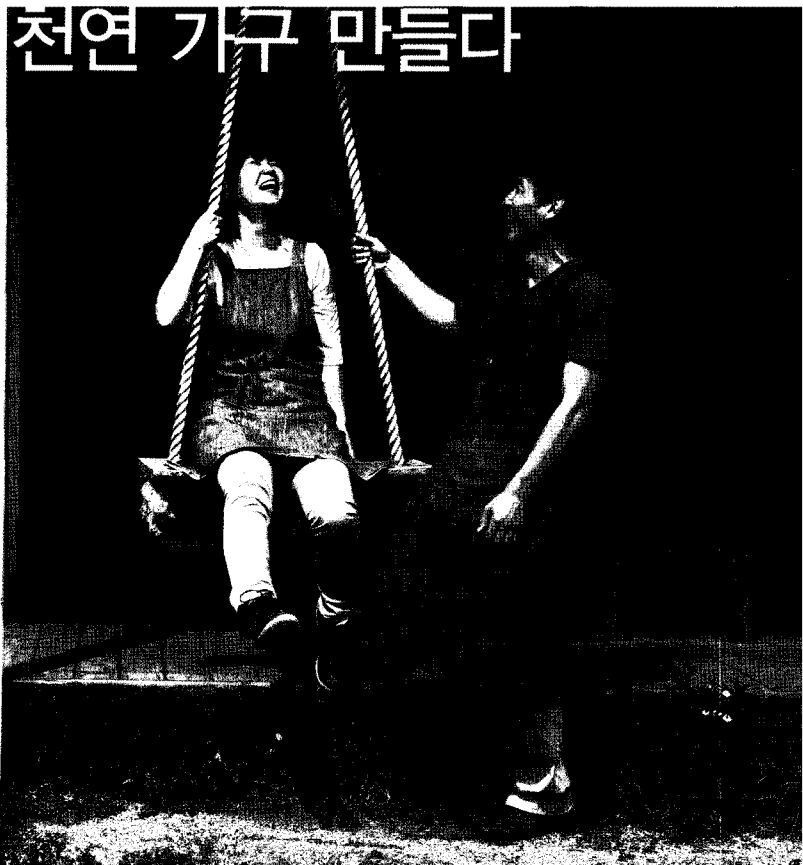
furniture studio
Park sang soon & Lee eun ju



박상순-이은주 '행복한 목수' 부부 공방 운영기

숲속 나무로

천연 가구 만들다



행복한 목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수식어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이유를 이들을 보는 순간 실감한다. 이 부부가 사는 법은 남다르다. 40대 초반. 직장 생활과 먹고 사는 일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서 오는 동년배 부부의 스트레스가 이들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남들보다 여유롭게 지내며 삶을 즐길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가구를 제작하는 공방 전체에 부부의 삶과 취향이 녹아 있다.

가구 스튜디오에서 자연의 상태를 살린 가구 딱딱딱딱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 가구 제작 스튜디오를 꾸린 이들은 박상순(41)-이은주(43) 부부다.

부부의 가구 제작소는 아늑하고 평안하다. 넓은 공터를 팔 벌려 안은 스튜디오 목조 건물이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다. 스튜디오 앞 잔디밭에는 무성한 풀이 제멋대로 돌아 있고, 그 위를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 다섯 마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부부가 나무를 두드려 지어낸 커다란 개집은 이름조차 무색케 하는 하나의 작품이다. 생활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이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부부의 지론이다. 부부는 가구를 디자인할 때도 화려한 외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가구 제작 전에 공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박상순 씨의 설명이다. 남편인 박상순 씨는 주로 가구 제작을 한다. 아내 이은주 씨는 디자인을 맡았다. 남편과 이곳에서 거의 매일을 보내는 까닭에 가구 제작에도 참여한다.

300년을 견디는 가구 만드는 꿈

부부가 정한 가구 콘셉트 문구가 '그와 나 사이를 디자인했다' 라는데, 그 의미가 새삼 와 닿는다. 마주 앉은 상대방의 얼굴이 가까워 한결 친근하게 여겨진다. 네모 반듯한 테이블일 뿐인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요즘 건축 자재와 가구에 친환경 인증이니 뭐니 수식어가 많은데, 공방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친환경' 임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천연 소재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목재는 북미산 하드우드를 수입해 쓴다. 국내 목재로는 느티나무, 산벚나무를 사용한다. 예외로 서랍장에는 소프트우드를 사용한다. 피톤치드 성분을 발산하는 것으로도 알려진 편백나무로 만들어, 서랍을 열었을 때 특유의 향이 짙다. 나무에 바르는 오일도 천연 오일을 사용한다. 천연 오일은 건조 기간만 4일. 이 또한 자연 건조다. 이렇게 완벽을 기한 가구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한 달. 부부가 한 달에 만드는 가구의 수는 전부 2세트다. 2세트면 나머지 부부의 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작업량이다.

부부가 만든 가구의 수명은 100년 이상. 상순 씨는 중간에 관리만 잘해 주면 100년은 물론 300년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래 견디는 가구를 만드는 것은 부부의 목표다. 은주 씨 역시 다음 세대까지 변하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서로에게 최상의 파트너인 부부. 가구 제작은 막노동이라 장시간 작업 후에는 온몸의 근육이 아파다는 그들에게 '노동주'는 백미의 즐거움이다. 그들의 노동주란 고된 작업을 끝내고 부부가 함께 바에 앉아 마시는 막걸리 혹은 와인 몇 잔을 말한다. 하루를 달콤하게 마무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묘약이 또 있을까. **MEDYCHECK**